

▶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가온누리 바리지'

환상적인 춤으로 '세상의 중심 백제' 전하다

설화 토대로 극적 상상력 더해
칠산 바다 호령하는 '계양할미'
백제를 세운 '소서노'
작품의 서사적 구조 유지
무대는 빠른 장면전환으로
경이롭고 환상적 느낌 전해
공연은 내일 소리문화전당서



백제의 국력이 왕성했던 6세기 초엽, 동아시아의 모든 불상은 백제로 집중됐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모든 길은 '백제'로 통한다는 말이 통용되기도 했다.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은 동아시아의 로마제국이라 불리었던 '해상강국 백제'의 위상과 찬란하게 꽃피운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7월 1일 오후 5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무대에 오르는 창작무용 대서사극 <가온누리 바리지>는 '중심'(가온누리)과 '방'(바리지)의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 '세상의 중심 백제'라는 의미를 담아낸다.

<가온누리 바리지>는 '백제는 동아시아의 로마였다' '칠지도'를 주된 소재로 하여 '소서노'를 통해 '해상 실�크로드'로 이룬 '해상강국'이었다는 연구를 단서 삼아 제작된 작품.

김수현 국악원 무용단장은 "연구 결과로만 인식되고 있는 사실에 입체적인 작업을 더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동아시아 각 주둔지에 보내어진 칠지도로 인해 백제가 힘의 중심축으로 존재했을 가능성

이 강하게 들었다"면서 "민일 백제가 각 주둔지에 칠지도를 하사했다면 그날이 백제왕과 나라에겐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었을까"하는 가설 하에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했다.

작품은 설화를 토대로 극적 상상력을 더했다. 학자이자 고대 백제 왕역의 오대원은 현대와 과거를 넘나들며 극을 이끌어 가며, 칠산 바다를 호령하고 관장하는 토착신 '계양할미'와 백제와 고구려를 세운 '소서노'는 작품의 서사적 구조를 유지해 준다. 백제의 위엄과 멋을 보여주는 '금동

대향로'와 '칠지도'는 영상과 소품으로 재현된다.

무대는 이탈막과 흡입막을 활용한 빠른 장면전환, 레이저와 조명의 강렬한 색채, 영상을 더해 경이롭고 환상적인 느낌을 전하고자 했다.

음악은 국악장단을 기본으로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오악선의 물'에서는 오악선(관현악단원들)이 음악을 리이브로 연주해 무대의 일체감을 더한다.

의상은 백제풍의 색감과 형태를 살리되, 현대적인 느낌을 가미되도록 디자인했다.

소품은 무대 미술과 특수효과를 조화시켜 작품의 의도를 살렸다.

작품은 김수현 무용단장이 임기 4년을 마무리하는 하는 공연으로 작품의 방향과 초안대본, 안무, 연출까지 직접 맡았다. 여기에 대본·협력안무로 김윤수(전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가 참여해 대본과 춤에 생기를 불어넣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예매는 홈페이지(<http://www.kukakwon.or.kr>)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 당일현장을 방문하면 1시간 30분 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나도야 소리꾼' 참가자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김한)는 아마추어 소리꾼 경연대회 '나도야 소리꾼' 참가자를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

'나도야 소리꾼'은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모악당 앞 더블 스테이지 무대에 올라 경연을 펼치게 된다. 모집 분야는 판소리 또는 민요로 아마추어 개인 및 단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나이와 성별, 인연에는 제한이 없으며 팀당 5분 내외의 무대를 꾸미면 된다. 고수 및 장단은 소리축제 집행부의 지정자로 진행되며 필요시 경연자가 대동할 수 있다.

소리축제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는 25개 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정해은 기자

판소리·전통극으로부터 세계 연극 비전 담아내다

신간도서 - 김익두 전북대 인문대 교수
'한국 공연문화의 민족공연학적 지평'



평생을 한국의 공연문화 연구에 매진해 온 전북대학교 김익두 교수(인문대 국어국문학과) 한국 공연문화의 깊이 있는 연구들을 담아낸 책 '한국 공연문화의 민족공연학적 지평'(전북대 출판문화원)을 펴냈다.

이 책은 김 교수가 지난 2013년에 펴낸 '한국 민족공연학'(서울: 지식산업사)의 후속 연구서로서, 그간 몰두해온 한국 공연문화 분야 연구서다.

모두 7부 13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에는 13편의 논문들이 실려 있다. 1부 방법론, 2부 양식론, 3부 축제론, 4부 연극론, 5부 판소리론, 6부 공연이론, 7부 공연학적 비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 공연문화 전반에 관한 김 교수의 폭넓은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연구방법으로서 그가 주창해온 '민족공연학이란 무엇인가?'를 비롯해서, 조희/우희, 무주 낙화놀이, 전주 풍납제, 제주 무당굿 심방놀이, 한국 전통극 마임, 판소리, 한국연극이론, 21세기 세계연극의 비전 등을 폭넓게 탐구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장인 12-13장에서는, 그가 평생 동안 연구해온 '민족공연학'의 입장에서, 21세기 세계연극의 새로운 비전으로, '비추어보기'와 '관계탐구'의 조화로운 융합의 방향을, 21세기 세계연극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세기까지의 세계연극은 '비추어보기'에 지나치게 집중해 왔으며, 이런 경향은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관계탐구'의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세계 연극을 일종의 소외의 양식으로 인도해 갔다고 말한다.

그 결과 그간의 세계 연극은 인간과 사물, 사회 및 우주와의 조화로운 '상호관계'의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류 연극의 방향을 '소외적 양식'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했다고 보고 있다. /정해은 기자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오늘 상영작 공개

'대책' 이 없는 청춘 '대책' 필요 문화재

(노후 대책 없다)

(직지코드)

7월 '주말의 명화'로
재개봉작 '헤드워' 상영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진정한 독립영화 '노후 대책 없다'와 해외로 반출된 국내 문화재를 재조명하는 '직지코드'를 29일 개봉·상영한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상영작 '노후 대책 없다'는 하이드코어 펑크 밴드 '스퀘레이드'와 '파인더스 팟'의 투어 공연을 중심으로 국내 펑크 씬과 청춘의 민낯을 가감 없이 담은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제42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화제작으로 떠오른 '노후 대책 없다'는 이봉우 감독이 직접 촬영과 편집을 맡았다.

영화는 별도의 후반작업 없이 완성된 작품으로 거칠지만 생생하게 펑크정신과 독립영화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상영작 '직지코드'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과 동서양 금속활자 역사의 비밀을 조망하는 추적 다큐멘터리

리 작품이다.

영화는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 목격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는 정지영 감독이 총괄 제작한 작품으로, 합리적인 의심이라 끈질기게 추적해나가는 제작진들의 취재력과 집요한 열정 등 비밀을 향한 추적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직지심체요절을 비롯한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7월 '주말의 명화'로는 15년 만에 재개봉하는 '헤드워'이 상영된다.

헤드워는 1998년 뮤지컬로 첫 선을 보인 후 2001년 영화로 제작됐다. 작품은 무명의 록가수 헤드워이 연인 토미에게 배신당한 후 앵그리 인치 밴드와 함께 자신의 영혼을 담은 노래를 부르며 진정한 반쪽을 찾아 미국 전역을 떠도는 여정을 담았다. /정해은 기자



↑ '노후 대책 없다' ↓



↓ '직지코드' ↓

'청년작가 완주 한 달 살기' 예술인 12명 선정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예술인 문화취향 활성 회사업 '청년작가 완주 한 달 살기' 예술인 지원 사업에 12명에 작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27일 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다.

이번사업에 지원한 신청자들은 음악, 퍼포먼스, 영상, 사운드, 웹툰, 회화, 공공미술, 영화, 뉴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심사는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완주군민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심사방식을 배려했다.

거주제공자 한 관계자는 "이렇게 능력 있는 전국지역에 많은 예술인들이 완주에 내려와서 예술을 보급하는 기회가 되어 완주군민으로써 뿌듯하고 주민들에게 심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상덕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응원하고 완주에서 예술의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삼아 문화취향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단풍미인쇼핑몰에서 펼쳐지는 한발 빠르게 만나는 건강한 여름!

신선함이 팡팡 터진다! <계절농산물 판매>

종나무에서 열리는 달콤한 열매
오디

무더운 여름 기운이 옥색
복분자

타일지 선정 10대 슈퍼푸드
블루베리

달고 맛있는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예약 및 배송
- 베리류 배송은 예약주문 순 수확 후 순차 발송, - 단풍미인씨없는 수박 1차 6. 12일, 2차 6. 29일 일괄배송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읍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365일! 100% 무료배송
택배비 100% 지원(정읍시청)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모든제품 100% 전국 어느 곳이나 우체국 택배로 무료배송

네이버, 다음에서 단풍미인쇼핑몰을 검색하세요!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문의 전화 : 080-535-4345(무료), 063-532-4345